



산업보건소식

THE OCCUPATIONAL HEALTH NEWSLETTER

제17회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을 맞이하면서

산업보건협회
회장 조규상

오늘날 공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산업사회에 있어서 재해와 질병은 그 양상이 더욱 복잡화 하고 발생빈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근로자를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생산에 있어서도 물적, 시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산업에 있어 안전관리는 생산업무에 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은 오늘날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 기본적 요건입니다. 근로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전하도록, 노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저해인자들

을 제거하여 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명량한 사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기업은 생산관리의 목표를 양질의 제품을 값싸게 대량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만들어 내는 데에만 주력한 나머지 안전보건관리가 소홀이 되어 왔으며, 이로 말미암아 생산면에 있어서나 경제면에 있어서도 많은 손실을 가져왔음은 여러 과학적인 자료를 통하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은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의 원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제거하며 근로자들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예방관리하여 주는 일입니다.

선진국가들이 이룩한 경제발전은 양적인

목

| | |
|----------------------------|---------------|
| 권두언 | 1 |
| 위생관리계획의 수립 ... (이광목) | 3 |
| 수은중독(하) | (윤임중) 5 |
| 표지의 인간공학 | (이태준) 8 |

차

| | |
|-----------------------|----------------|
| 유기용제의 생물학적 허용농도 | (김정만) 12 |
| 협회소식 | 14 |
| 한일집담회 임원명단 | 18 |

☯ 사고는 순간 불행은 영원

면에서 뿐만 아니라 재해요소를 제거하므로서 실질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는 사실을 표훈(表訓)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하여서는 늦으나마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업장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과 요원이 갖추어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착실히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근로자들의 합심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과거 고용관계에 치우쳤던 근로기준법에서 기계시설과 유해물의 대책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해예방기술의 개발 보급과 지원 그리고 전문단체의 육성으로 지속적인 사업장의 안전보전이 이룩되도록 산업안전보건

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은 법이나 정부의 힘으로만 이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다운 노사협력하에 사업장 내에서의 재해는 피할 수 있고 질병 또한 예방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스스로 노력하므로서 이룩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지역사회에 있어 이 분야의 전문단체들의 협력으로 만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산업안전보건의 향상은 노사간을 넘어 우리 모든 국민의 복지국가를 향한 지상과제입니다.

뜻깊은 제 17 회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맞이하면서 다시한번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원 고 모 집 안 내

산업보건사업에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원고내용 — 사업장 보건관리 성공사례 (200 자 원고지 10 매내외)
 - 산업보건에 관한 수상 (200 자 원고지 7 매이내)
 - 산업보건에 관한 법령질의 (200 자 원고지 5 매이내)
-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고료를 우송해 드리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원고지는 200 자 원고지에 한글로 가로로 쓰시고 필요한 한자나 외국어는 괄호안에 기재하시고 집필자의 성명·주소 및 소속기관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당 협회 본부 회보편집실